

금남로에서



박치경 수석논설위원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국민의당이 진검승부를 치르게 되기 때문이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 지역 유권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호남에서 야권이 양분된 것은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새천년민주당이 맞선 지 12년 만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사활을 걸고 호남에서 맞붙게 됨에 따라 유권자들은 제대로 ‘대접’받게 됐지만,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머리가 무거운 것도 사실이다. ‘화끈한 판’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선 더민주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탓이 적지 않다. 문재인 전 대표 시절 최고조에 이른 당 내분 끝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을 뛰쳐나오게 지난해 12월 13일, 이에 앞서 친정배-박주선-박준홍 등 호남 출신 신당파

누가 호남을 대변할 것인가?

의 움직임이 빨라졌고 당내 비주류의 반발도 임계점에 다다른 상태였다. 해결책으로 문 전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요저부동하던 문 전 대표는 분당 사태 후인 올 1월 27일에야 백의준군을 선택했다.

‘내가 야당 적자’ 혈투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안철수는 당 밖으로 나갔고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과 김한길 의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독자신당을 추진하던 친정배·박주선 의원도 합류했다. 문 전 대표의 망설임의 꼬리가 길어지는 바람에 ‘호남 야당 체제’가 구축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더민주가 국민의당에 의해 살아났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당이 출현하자 문 전 대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에게 바통을 넘겼고 새로운 피들을 수혈했다. 결국 국민의당은 ‘큰 메기’ 역할을 하며 더민주를 깊은 잠에서 깨워 준 형국이 된 것이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전열을 정비한 더민주의 ‘안방 수습’에 나섰다. 광주여성 출신의 양형자 전 삼성전자 상무(호순), 오기형 중국통상 전문 변호사(호), 김병관 웹젠 의장(정읍),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호) 등 호남 연고의 신진 인사들을 잇따라 영입했다. 최재성·노영민 등 이른바 일부 ‘친노’는 일단 2선으로 물러나거나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당도 호남 인사들로 골격을 갖추고 배수진을 쳤다. 안철수 의원과 함께 친정배 의원을 공동대표로 추대하고 박주선·주승용(원내대표) 최고위원을 선임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 황주홍 전국위원회 총무위원, 임내현 법률위원장 에다 전용철 전 감사원장은 윤리위원회 위원장 겸 공직후보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호남에 대한 뜨거운 구애와 함께 ‘야당 적자’ 싸움도 불꽃을 튀기고 있다.

득표의 관건은 진정성

이런 상황에서 지역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 참신한 인재 영입과 민생, 그리고 정치 혁신? 구애 많은 원직론은 이젠 너무 많이 들어 물린 정도다. 차라리 누가 호남을 대변해 줄 수 있는냐고 묻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양당(兩黨) 중 어느 쪽이 호남의 대변자가 될 수 있는지 뜯어보자. 우선 더민주의 ‘진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최근 만난 광주의 한 유권자는 “문

재인 전 대표와 친노 핵심이 발을 뻗 것은 ‘위장 후퇴’가 아니냐”며 의구심을 버리지 못했다. 호남 지지를 기반으로 총선에서 성과를 거둔 후 문 전 대표와 핵심들이 전면에 부상할지 모를 일이라며 미심쩍어 했다. 이렇게 되면 지역 인사들은 다시 들러리로 전락하고 결국 ‘친노당’으로 원상복귀하게 될 것이라는 의심을 험사리 떨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더민주의 뺏속까지 호남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신뢰 구축이 우선이다.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경계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창당과 선거 준비 과정에서 호남 출신들을 얼굴로 내세웠다가 나중에 바로 ‘뺨’(掌) 시키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호남 출신이 공천 과정에서 희생을 강요당하거나 선거 후 당내 헤게모니 다툼에서 밀려난다면 지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우려다. 총선 후에도 호남 정치인들을 중용하고 광주·전남·북을 위해 나서는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 달라는 요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선택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누가 호남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 줄 것인가. 지역 유권자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unipark@kwangju.co.kr

社說

선거구 획정 서둘러 총선 연기 사태 막아야

17일로 56일 남은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이 여야의 입장 차로 지연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야 당내 경선 일정의 차질을 빚는다면 최악의 경우 총선을 제때에 치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조정 대상으로 거론된 광주·전남 등 일부 지역구 예비후보들의 불이익이 지속되는 것은 물론 당장 각 정당의 내부 경선에 불똥이 떨어졌다. ‘선거구 공백’ 상황에서 공천 절차가 진행되면 사후 결과에 대해 불복해도 법적 제재 근거가 없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현재로서는 공정한 선거인단 모집을 위한 안심번호 제공도 불가능해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사전 준비를 위해 사흘 23일 전에 선공위에 신청해야 하는 안심번호의 경우 여야가 오는 23일 분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을 처리하더라도 3월 중순이나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부터 경선을 시작하려면 새누리당은 23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다음달 18일까지는 모두 종료하기로 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일정을 재조정했다.

그것처럼 정의와 국회의장이 중재한 여야 협상 역시 소극 없이 끝났다. 오는 23일 열리는 국회 분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려면 소관 상임위 심의 절차 등을 고려해 이번 주 내에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개정 법안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 이행에 연쇄 차질이 생겨 국회의원 선거가 물 건너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난항이 계속되는 것은 정쟁 법안과 선거법 일괄 처리를 고수하는 새누리당과 선거법 우선 처리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치 때문이다. 당리당락에 얽매어 국가 중대사인 총선마저 위태롭게 하는 행태는 너무 지나치다. 양당은 상황이 심각한 만큼 선거구 획정을 서둘러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전남지역 주택 갈수록 노후화...대책 마련을

30년 이상된 노후 주거용 건축물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 농촌 지역의 노후 건축물은 장기간 방치되면서 ‘주거의 질’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범죄 등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지역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 비중이 타 지자체에 비해 훨씬 높았다. 특히 전남은 절반가량이 노후건축물인 데다 35년 이상 된 건축물도 전체의 42.4%를 차지하고 있어 삶의 질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건물 중 주거용으로 한정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전남의 주거용 건축물은 42만2872동인데 35년 이상 된 건축물은 23만2198동(54.9%), 30~35년 미만은 2만4782동(5.9%)이 나 됐다. 또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장 정비해야 할 주거용 건축물은 무려 60.8%였다. 그럼에도 이들 건축물들은 수의 창출을 기대할 수 없

다는 점 때문에 민간 건설업체들이 사실상 재개발·재건축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의 노후 건축물은 전체의 32.7%, 주거용 노후 건축물은 전체의 39.4%로 전남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하지만 광주는 아파트 비율이 72.4%로 전남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하지만 광주는 아파트 비율이 72.4%로 전남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하지만 광주는 아파트 비율이 72.4%로 전남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주거 문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민간에게만 맡겨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소도시 등 격차가 심해졌다. 따라서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정책과 수요·공급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 시스템의 정착 등 장·단기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은펜클럽



박홍근 건축사·양림플랫폼 대표

설계자를 기억하지 않는 문화전당

었다. 그 후 내가 설계한 건물이 나의 흉상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위해 더 치열하게 작업해야겠다는 다짐도 해 보았다.

호주 하면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연상한다. 이 건물의 원 설계자는 요른 윗존(Jorn Utzon)이다. 발주자 측과 공사기간과 시공성, 예산과나 지출 등등의 문제로 시공 중에 결별까지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2007년 현지를 방문했을 때 건물 내부에 커다란 요른 윗존의 기념공간이 있었다. 그의 건축 철학을 기리고 공유하며,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문화의 차이인지, 건축물이 유명해져서 그런 것인지, 어찌됐건 설계자에 대한 예우는 부러웠다.

일본엔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있다. 그가 설계한 고베에 있는 효고 현립미술관엔 안도다다오 기념공간을 크게 만들어 그의 건축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지중미술관, 이화원미술관 등 많은 작품을 설계한 예술의 섬 나오시마엔 안도 박물관도 있다. 그곳엔 안도가 설계한 설계도와 모형이 전시되어 그의 건축세계를 체험할 있도록 되어 있다. 단지 건물이 만들어지는 데 일조한 한 부분으로 여기는 게 아니다. 설계자의 디자인 철학, 방법, 가치를 공유하며 기억하고 있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할까? 이는 ‘처음’ 개

념을 설정하고, 방향을 잡은 그 창의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건축물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높고 중요한 만큼, 그만큼의 올바른 평가가 생 각한다.

‘콜롬버스의 계란’처럼 알고 보면 계란을 세운다는 게 아주 쉬운 일이다. 그러나 처음 하는 사람에겐 영항력이 매우 높고 중요한 만큼, 그만큼의 올바른 평가가 함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설계, 건축물의 처음 방향을 잡고 개념을 도출하는 것, 그 디자인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그 분야가 발전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커다란 영광과 용기가 함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설계, 건축물의 처음 방향을 잡고 개념을 도출하는 것, 그 디자인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그 분야가 발전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커다란 영광과 용기가 함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2015년11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했다. 2005년12월에 국제 현상공모에 의해 건축가 ‘유구승’ 안이 당선되었다. 당선된 작품이 일부 조정되어 거의 초기 개념으로 완공되었다. 그런데 개관식 장소에선 설계자는 뒷전에 있었다. 전면엔 정치인들만 있었다. 문화전당 개관식에 필요한 문화는 없고 정치적 문화행사로만 느껴졌다. 비록 이런 느낌은 나쁜 것이 아니었다란 것을 추후 알게 되었지만...

문화전당 내엔 설계자 유구승에 대한 기억의 공간이 없다. 단 설계 진행 과정의 초기 모형과 기본설계도 일부, 설계자가

개념을 설명하는 동영상만 타 전시와 함께 보여 질 뿐이다. 문화전당 설계자의 공간을 상설전시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의 건축철학과 건축작품 등을 알려 줘야 한다. 그래야 문화전당도 제대로 알 수 있다. 이는 문화전당과 그 주변 도심의 변화 과정 등을 함께 보여줄 기념공간이 되어야 한다. 옛 도심의 공간구조 변화와 그 속에서 문화전당의 건축적 특징 등을 전시한다면 ‘광주’도 알릴 수 있고, 문화전당의 철학과 개념, 특징 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아트숍에도 건축물 형상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이 있어야 한다. 설계자와 문화전당에 관련된 책과 다양한 소품 등을 전시 판매해야 한다. 그런데 문화전당 관련 사진엽서이런 이곳만의 정체성이 있는 물건이 없다. 문화전당 아트숍엔 이곳만의 영혼이 없다.

건축물과 이를 설계한 건축가는 내부 운영 콘텐츠와 더불어 중요한 문화·관광 자산이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이 이런 것인데도 이를 가장 소외시키고, 기억하지 않는 문화전당이 아쉽다. 이에 관심이 별로 없는 지역이 안타깝다.

은펜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이현형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

영원한 ‘갑’도 ‘을’도 없다

선하는 시설유지보수 종사자 등 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꾸준히 일하고 있다. 이로써 이 병원이 운영되고 환자가 입원하고 치료를 하면 최종적으로 퇴원을 한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누가 이런일들을 하는가? 모두가 근로자이거나 특수한 형태의 근로자이다. 크게 보면 모든 근로자이고 노동자임은 틀림없다. 왜 이들이 맡은 일을 하는 것인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아시아사피 돈을 벌기 위해서다. 경제를 이끌기 위해서다. 좀 더 생각하면 임금을 받기 위해서 사용자,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근로를 제공받은 사용자는 그 댓가로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없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이는 분명 상호 윈윈(win-win)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과정에 근로자는 약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고, 유일한 무기인 노동은 노동없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노동없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이는 분명 상호 윈윈(win-win)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과정에 근로자는 약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고, 유일한 무기인 노동은 노동없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느 쪽도 ‘갑’의 입장이 아니다. 노사가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향해, 방향을 찾아서 함께 동행하여 목적지를 향해 고속도로를 달리는 상황이다. 누구도 힘의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그 차는 고속도로에서 전복하고 사망할 수도

있다. 잠을 자지 않도록 상호 이야기하고 휴게소가 나오면 잠시 서로가 음식을 나누며 쉬었다 가고, 주변에 좋은 명승지가 있다면 같이 다녀갈 수도 있다. 차가 고장나면 서로가 해결방안을 찾아서 수리하여 갈아가는 것이 최선이다. 물론 다른 차를 이용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승하여 목적지를 향하는 것이 상호 경제적 및 사회적 이익의 최선이다.

그러나 요즘 ‘갑’의 횡포 등 ‘갑’과 ‘을’의 관계가 자주 회자되곤 한다. 영원한 ‘갑’도 영원한 ‘을’도 없다. 협력업체 대표도, 원청업체 대표도, 자영업자도, 상호계약에서 ‘을’이 되기 마련이다. 대기업도 글로벌 사회에서 경쟁 속에 ‘을’이 되기도 한다.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3분의2가 큰 의미에서 임금근로자들과라고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사업체종사자가 1622만8000명이라고 한다. 사업체 종사자뿐만 아니라 비임금근로자도 더 확대하면 임금근로자와 같은 위치다. 이렇듯 병원에서 임금근로자로 일하지만 백화점·마트에 가면 손님으로서 ‘갑’의 위치에 있고, 내가 간호사로서 ‘을’이지만 내가 출산을 위해 입원하면 다시 서비스로 받아야할 ‘갑’의 위치에 된다. 정소원이야도 백화점에 가면 손님이라는 것이다. 다시 한번 서

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최근 항공사 여승무원 사건, 호텔 주차장 사건, 모 그룹 운전사 폭행사건, 콜센터 상담원 사건,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은 사업주들 등 사실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문제는 분명 있다는 것이다. 사업주들의 고동과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무한 경쟁에서 살기 위해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신체품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장에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투자결정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 그것도 모두 사업주의 책임임이 얼마나 힘들지 않았는가? 그래서 같은 고민이 필요하다. ‘갑’과 ‘을’이 아니다. 사건들이 여론화 되지 않고 현장에서 수면아래 다양한 일들이 잠자고 있을 것이다.

술잔 돌리듯이 우리가 우리를 서로를 돌려서야 되겠는가? ‘갑’의 입장을 안다고 그것을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이해를 하고 도와주어야 서로가 행복한 만남이 되지 않겠는가?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고 모든 것이 중요하나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이 있어야 어제도 내일도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이 사회 모두가 ‘갑’이 되고, 모두가 ‘을’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고속도로를 달려보길 바란다.

無等鼓

국가(國號)는 국가(國號)와 함께 한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국가의 가사는 대부분 문학적 가치보다는 애국적 내용이 중심돼 흔히 애국가(愛國歌)로 불린다. 애국가의 가사를 보면 그 나라가 지향하는 바를 엿볼 수 있다.

일본의 ‘기미가요’와 영국의 ‘신이여, 여왕을 구하소서’는 입헌군주제를 천명하고 있다. “당신(천황)의 시대는 천대에서 팔천대에/ 조약돌이 바뀌어 되어서 이기가 길 때까지.” 기미가요는 메이지시대 하야시 히로모리가 고급 단가집의 가사에 선율을 붙여 만들었다.

애국가 작사자

국 배에 올랐다가 불모로 잡혔을 때 지었다. 키는 영국군의 밤새 포격에도 맥헨리 요새의 성조기가 끄떡도 않고 있는 것을 보고 감동해 “성조기는 우리가 사수한 성벽 위에서도 의연히 나부끼고 있었다”고 노래했다.

프랑스 ‘라 마르세예즈’와 중국 ‘의용군 행진곡’은 프랑스혁명과 중국의 항일운동 당시 전투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둘 다 행진곡에 가사가 전투적이다. 우리 애국가는 전형적으로 조국의 자연

을 노래하고 있다. 칠레와 필리핀 및 남아공이 우리와 비슷한 가사를 가지고 있다.

“하느님, 저희의 자비로우신 여왕 폐하를 지켜 주소서”로 시작하는 영국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지만 작곡자는 미상이다. 헨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고 한때 미국·덴마크·스웨덴 등지에서 국가로 사용된 적이 있어 세계에서 가장 널리 불린 국가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미국·캐나다·터키·온두라스처럼 국가를 찬양하는 국가도 있다. ‘성조기여 영원하라’로 알려진 미국 국가는 1814년 9월 시인이자 변호사인 프란시스 스콧 키가 제퍼슨 대통령 특사로 영국 배에 올랐다가 불모로 잡혔을 때 지었다. 키는 영국군의 밤새 포격에도 맥헨리 요새의 성조기가 끄떡도 않고 있는 것을 보고 감동해 “성조기는 우리가 사수한 성벽 위에서도 의연히 나부끼고 있었다”고 노래했다.

/장필수 사회부장 bungy@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